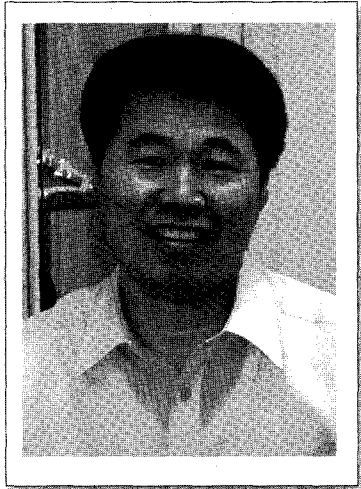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눈물 젖은 빵은 맛이 다르다!



김 병 오

전국발명교육연구회 회장
(inv.or.kr/ajukbo@hanmail.net)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려면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보리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젊은 시절에 힘든 삶의 체험을 한 사람이 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갈증을 겪은 자만이 물의 맛을 말할 수 있으며, 미움을 받아 본 자만이 미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체험하라!

기아를 체험해야 진정한 기아의 실상과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 발명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고자 할 때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일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된다.

눈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된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된 발명품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표현방법을 눈으로 체험하는 것도 발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 중의 하나이다. 물론 기록하면서 체험하고,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느끼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결국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체험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발명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변의 발명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그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듬어서 발명품으로 만들어 가는자의 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가상의 체험도 중요하다

성공하는 삶에 대한 강연자인 '데일 카네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상회의를 머릿속에서 개회했다고 한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가상으로 초청하여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꽃 튀는 아이디어 논쟁이 그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상회의를 하고 나면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한다.

우리가 평소에 시나 소설 또는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상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상 체험 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와 행동을 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 이제 눈물 젖은 빵의 맛은 어떨까?

빵을 살 돈이 있어야 빵을 먹을 수 있고, 눈물을 흘려보아야 그 빵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체험하고 물질이나 사랑에 대한 갈증도 느껴보아야 아이디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생각을 갖고 체험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직접 체험한다면 그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서울 J중학교 김모 학생이 봉사활동으로 시각장애인들의 1일 도우미체험 활동을 하다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시각장애이용 컵'이다. 이 학생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편함을 메모하였다가 학교에 돌아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후 먼저 그림으로 스케치하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였다. 이어 주변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자문을 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만화나 글짓기로 표현한 후 구체화시킨 것이다. 결국 좋은 발명품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에서 금상을 받게 되었다.



▲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에서 금상 수상한 '시각장애이용 컵'.

이처럼 좋은 발명 아이디어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

발명 아이디어

때밀이 수건 이태리 타월

이태리엔 '이태리 타월'이 없다. 물론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도 '이태리 타월'은 없다. 그러나 '이태리 타월'은 우리 나라에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비누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 수질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로 목욕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남대문 시장에 들린다. '이태리 타월'을 사기 위해서이다.

이 '이태리 타월'을 발명한 사람은 김필곤 씨다. 김 씨는 방직공장에서 일이 끝난 후 몸을 씻는 과정에서 '이태리 타월'이 만들어진 것. 이때 들고 간 천이 성능이 좋아 재봉틀로 박아서 손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고, 주변에 나누어주었더니 반응이 좋아 특허를 내고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태리에서 수입한 천이라 '이태리 타월'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남녀노소 모두의 목욕 필수품이자 목욕계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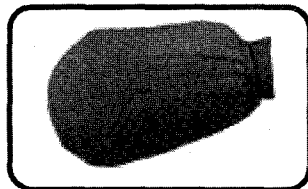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이태리 타월'도 불

편한 부분이 있기 마련. 여기 불편한 부분에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처럼 '이태리 타월'은 점차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바뀌고 있다.

개선방법 ①

손가락 장갑 형태의 이태리 타월



◀ 손목부분에 고무밴드를 하고, 스펀지를 천에 붙여 두툼하게 만든 이태리 타월.

개선방법 ②

자! 지금부터 '이태리 타월'의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발명품을 함께 만들어 보자.

■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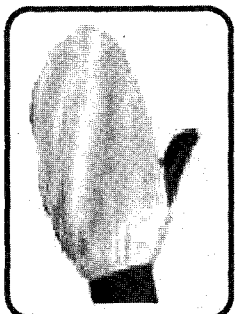
- 사각 주머니 형태의 이태리 타월 1장
- 가위
- 사인펜
- 실(타월과 같은 색)과 바늘

■ 만드는 과정

- ① 먼저 이태리 타월의 입구쪽 가장자리 한쪽 부분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기 위해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 ② 표시된 부분을 가위로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 ③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구멍의 가장자리를 감침질한다(감침질: 직물의 양끝이나 의복의 단에서 꺾어진 곳을 튼튼하게 꿰매는 바느질의 한 방법).

완성품

아주 쉽게 또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되었다. 아마 매우 편리하고, 때를 미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5년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서울학 생과학 발명품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작품이다. 그럼! 지금 만든 발명품을 가지고 바로 목욕탕으로 가보자. 얼마나 편하고 쉽게 목욕할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손가락 끼우는 구멍을 만들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꾼 이태리 타월.